

Left21.com

2011년 2월 7일

리포트21

이집트 혁명에 승리를!

카이로 현지에서 주디스 오어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2월 1일 카이로에서 1백만 명 이상이 행진했다. 카이로가 하나의 멈추지 않는 행진 대열이 된 것 같았다.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모든 이가 웃으며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누구도 이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카이로에서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이 아니다. 수에즈에서 50만 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50만 명이, 만수라, 아리쉬와 마할라에서 25만 명이 행진했다.

이집트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어떤 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4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튀니지의 한 고통받는 청년의 분신으로 시작된 투쟁이 아랍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대중 혁명으로 발전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하는가? 평범한 사람이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누가 말하는가?

아무도 이 운동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이미 시위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 죽은 이의 가족들은 죽은 이의 사진을 들고 행진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혁명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카이로의 상점에는 식량이 많지 않다. 그러나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수만 명 중 굶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파 사이를 헤치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이집트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집트 혁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고 말한다.

어떤 언어가 그들의 즐거움, 에너지와 용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2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 카이로의 모든 골목이 저항의 근거지로 변했다.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것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이로 거리에서 자신의 혁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고 있다.

아메르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단지 돈, 가난과 안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바랍니다. 우리는 체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집트 반란은 이 체제의 뿌리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가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모습이다. 얼마나 대단한가.

무바라크 ‘퇴진의 날’을 맞아 수백만 명이 행진하다

2월 4일 엄청난 수의 시위대가 다시 한번 이집트 방방곡곡을 행진하며 호스니 무바라크와 그의 정권의 종식을 요구했다. <알자지라>는 이날 오후에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과 인근 지역에 1백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50만 명과 수십만 명이 참가한 두 개의 거대한 행진 대열이 시내 중심가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집트 남쪽 끝에 위치한 도시인 룩소르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있다. 최근 정권이 고용한 깡패들이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대와 외국 언론인들을 공격했지만 많은 사람이 2월 4일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지금 타흐리르 광장에 있는 한 이집트 사회주의자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카이로뿐 아니라 이집트 방방곡곡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무바라크 정부는 물러나라’, ‘민중은 무바라크의 하야를 원한다’, ‘[무바라크]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같은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제[2월 3일] 시위대를 상대로 자행된 폭력에 항의하려고 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8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체 종업원이 시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슬림형제단 활동가들도 광장으로 집결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다른 야당 활동가들도 왔습니다. 정권의 운명이 며칠 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모든 야당은 ‘이행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안요원들을 적발하고는 몸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공공안전을 책임집니다.”

역시 광장에 있는 모하마드는 이런 보고를 보냈다.

“우리는 아자르 모스크에서 타흐리르 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언론들을 공격한 민병대 요원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군대는 우리가 광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엄청난 규모의 시위대가 왔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 광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광장 곳곳에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차단막에 서 있는 시위대는 통과하는 사람들을 검문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다섯 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광장으로 들어섰을 때 타흐리르 광장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요일 예배가 끝난 사람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광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광장에는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사람들은 반무바라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집트 투쟁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사진 제공 <소셜리스트 워커>

궁지에 빠져 곤혹스러워 하는 미국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이집트 항쟁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아랍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나라가 혁명 전야의 상황인 것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는 서방 제국주의와 그의 예측 정부들의 위기와 결합돼 폭발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의 운명은 이제 세 세력 - 군대, 미국 정부, 그리고 이 둘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이집트 민중 - 에 달려 있다.

이집트군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집트군은 1952년 자유장교단이 권력을 잡은 뒤부터 모든 이집트 정권의 핵심 기반이었다. 무바라크는 전임자인 가말 압델 나세르와 안와르 사다트와 마찬가지로 군부 출신이다.

지난주 시위대는 도심으로 출동한 군대를 환영했다. 증오의 대상인 중앙보안경찰을 대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군부의 과감한 제스처 [시위대를 동정하는 태도]가 군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지지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긴장을 해소하고 무바라크 독재 정부가 통제를 회복하고 후계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은 군사령관들의 책략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무바라크가 두 군부 인사인 오마르 술레이만과 아흐메드 샤피크를 각각 부통령과 총리로 임명한 것을 볼 때 그는 권좌에 남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물론, 그가 30년 만에 부통령을 임명한 것은 지난주 일요일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요청한 “질서 있는 승계”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7년 미국 국무부 전통문은 옛 정보국장인 술레이만을 “확고한” 무바라크 충성파로 분류했다. 또 다른 2009년 전통문은 술레이만이 “이집트가 급진주의에 의해 포위됐다”고 성토했다는 것을 인용했다. 술레이만은 급진주의의 사례로 이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거론했다.

방파제

미국 정부는 무바라크를 이집트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주의와 급진주의의 파괴에 맞서는 방파제로 여겨 왔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은 이 점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무바라크는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이익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중동 평화 협상에 적극적이

었다. 무바라크는 이스라엘과 정상적 관계를 맺기 위해 중동 평화 협상에 나선 것이었다. ... 나는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 민주화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했다. 한 이스라엘 전문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1980년대 말 동유럽과 다르다. ... 중동 지역에서는 안정된 독재가 안정된 민주주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혼란, 무정부 상태와 급진주의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집트 항쟁이 발전하면서 버락 오바마는 무바라크가 부담이 되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세심하게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

로 무바라크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그가 시위대를 진압하지 말고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15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이집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말이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주 토요일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토론에 참가한 정부 내 인사들이 전한 말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장 호스니 무바라크의 사임을 요구하는 데 못 미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 무바라크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잃을 수 있고 이집트 국내에 정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복잡한 고려를 하는 것은 1978~79년 이란 혁명의 악몽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동맹인 사 정부에게 너무 오랫동안 지지를 보냈고 결국 나중에 뒤늦게 사 정부를 버렸을 때 이란군은 혁명 운동에 직면해 무너져 버렸다.

오늘날 이집트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집트 군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이집트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군은 동질적인 기구가 아니다. 그들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외부 압력은 거리에 나선 이집트 민중의 압력이다. 이 민중의 힘이 오늘날 오바마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2009년 9월 엘바라데이와 오바마 엘바라데이식 타협은 이번 혁명으로 자신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엘바라데이, 우리 혁명을 흠치지 말라”

많은 부유한 이집트인과 서방 정부들에게 한 인물이 세속 반대파의 ‘얼굴’로 등장했다. 그가 바로 모하마드 엘바라데이이다.

그는 국제 핵감시 기구인 IAEA 사무총장이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 보통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한다. 이번 항쟁에 참가한 많은

이는 그가 돌아온 것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다. 지난 일요일 그가 타흐리르 광장에서 연설할 때 일부 사람은 “우리 혁명을 흠치지 말라” 하고 소리쳤다.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번 반란이 너무 멀리 나가지 않을지 우려한다. 그러나 그들도 옛 정권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엘바라데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엘바라데이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다른 세력에 의지해야 한다.

엘바라데이는 분명히 민주적 이집트를 바라며, 그가 중요한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엘바라데이식 타협은 이번 혁명으로 자신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동에서 확산되는 반란

튀니지 혁명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튀니지인들은 독재자 벤 알리를 몰아낸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1천 명이 총리 관저 앞에 천막을 치고 과도 정부의 사임을 요구해 왔다.

지난주 금요일 경찰은 이들을 공격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슬람주의자 2백 명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수도 튀니스에서 행진했다. 벤 알

리 정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을 탄압했다.

지난주 일요일에 튀니지인 수천 명이 망명했던 이슬람주의 지도자 라체드 가누치의 귀환을 환영하려 공항에 몰려들었다.

지금 튀니지의 투쟁 수위는 벤 알리를 몰아낸 투쟁에 비해 약해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과도 정부에 아직도 12명의 구체제 인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총리 관저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벌이는 모하메드 부크레스는 “그것은 민중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과도 정부 인사의 사임을 바랍니다”고 말했다.

옛 지배 정당 인사들이 복귀하자 튀니지노동총연맹(UGTT) 대표들은 정부에서 사임했다. 벤 알리의 몰락 이후 동요했던 옛 지배자들이 재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며 싸운 세

력들은 혁명을 지속해야 한다.

벤 알리의 몰락은 다른 중동 국가의 민중이 자국 지배자들에 도전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거리 시위에 직면해 이번주 화요일에 기존 정부를 해산하고 옛 총리를 불러 새로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즉각 정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왕의 발표 직전에 암만과 다른 도시에서 물가상

승과 실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주 목요일 예멘에서는 사회주의자, 이슬람주의자와 청년 활동가들이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수도 사나를 마비시켰다.

지난주 카타르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중동의 친미 정권 지도자들은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